

우리나라 국제교육협력과 ODA*

이 현 훈 / 강원대학교 아태리더십센터 소장 경제무역학부 교수

박 의 정 / 강원대학교 아태리더십센터 사무국장

| | |
|-------------------------------|----|
| I. 서론 | 12 |
| II. 우리나라 국제교육협력 및 지원 현황 | 13 |
| III. 국제교육협력의 문제점 | 25 |
| IV. 교육분야 ODA의 향후 추진방향 | 27 |
| V.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 | 29 |
| VI. 요약 및 결론 | 32 |

* 본 논문은 2006.11.24(금)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국제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발표한 논문임.

I. 서론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세계화 및 정보화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교육부문에서의 국제협력과 지원도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간단히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부문에서의 국제협력과 지원의 현황을 살펴본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부문에서의 국제협력과 지원”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서정화(2003)는 국제교육은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동포, 그리고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마련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국제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인적 및 물적교류와 이에 요구되는 제반 협력사항들을 국제교육협력이라고 보았다. 즉, 교육부문의 국제협력은 교육학 또는 교육제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간 협력뿐만 아니라 교육을 매개로 하는 모든 인적 및 물적교류와 협력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문의 국제지원이란 쌍방의 호혜적인 국제협력과 달리 주로 일방의 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유상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주로 교육을 매개로 하여 우리나라가 저개발국가에게 일방적으로 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유상형태로 지원하는 형태만을 논의 대상으로 한다. 즉,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에 있어서 주로 광의의 교육부문을 논의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05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는 7억 4,360만 달러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2개 국가 평균 0.33%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나마, 2005년도 ODA 지원규모는 2004년 대비 75.7% 증가하여 2004년 GNI 대비 0.07%보다는 약간 증가한 것인데 이는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에 따른 출자금 지급 등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1인당 ODA 부담은 2005년 15.2달러(2004년 8.8달러)이다.¹⁾

즉,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일원으로 그 위치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의무가 증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원조규모는 그 절대적인 규모와 GDP 대비 상대적인 규모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UN의 권고기준이나 DAC 국가들의 평균치까지 ODA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²⁾

1) 한편, 대북지원 실적이 민족간 내부거래로 인정되어 ODA 통계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4억 3천3백만 달러를 포함시킬 경우 ODA는 GNI 대비 0.15% 정도이다.

2) 우리나라 정부는 2005년 11월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에서 2009년까지 GNI 대비 ODA를 0.1%, 그리고 MDG 목표연도인 2015년에는 0.25% 수준까지 확대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교육분야의 ODA는 2005년도를 중심으로 전체 ODA 협력사업비의 17%에 해당하는 총 364 억원을 지원하였다. 교육분야의 ODA는 총액규모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정책의 시행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모범적인 국가로서, 이 같은 급속한 경제성장의 근본적인 동인은 경제발전 초기단계부터 풍부한 인적자원과 함께 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가 있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외국의 저개발국가에게 전수함에 있어서 교육분야의 ODA는 다른 분야 ODA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이다.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ODA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육의 국제협력 중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교육분야의 정책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교육분야 ODA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분야 ODA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제III장에서는 교육분야 OD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제IV장에서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제시하고 제V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II. 우리나라 국제교육 협력 및 지원 현황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ODA는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의 권고기준이나 DAC 국가들의 평균치까지 ODA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에 기초하여 적은 규모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ODA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교육분야에서의 ODA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이 지금의 경제발전과 고도의 성장을 이룩한 것은 역사·문화적으로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열정과 그에 따른 정부의 투자의 결과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한국교육은 개발도상국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분야의 해외 ODA 확장은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로도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ODA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개도국의 실상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빈곤퇴치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체험하였으며, 다양한 인적자원육성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경험은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상대국민을 우리나라의 우방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확산시키고 공유하는데 있어, 교육분야 ODA는 무엇보다 훌륭한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교육분야의 ODA 사업을 통해 배출되는 수원국 연수생들은 자국에서 경제발전의 지도자로서 기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해당국과의 긴밀한 경제, 정치, 사회 등의 협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부문 ODA를 통해 상대국에 대하여 보다 더 알게 되고 폭넓은 정보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 지구촌 경제가 진행됨에 따라 정보와 지식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ODA를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HRD)에 집중한다면,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다. KOICA(2005)는 “2006-2009 대외무상사

업 추진전략”에 있어서 7대 전략적 지원분야를 설정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수원국 주민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분야이다.³⁾ 나머지 분야도 상당부분 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분야이다. 최근 제시되고 있는 한국형 ODA도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분야인 개발경험을 수원국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해서 전수하여 이들의 경제발전과 빈곤완화에 기여하자는 것이다(장현식, 2006). 따라서 교육분야의 ODA는 향후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그 실천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이 협력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ODA를 실효성 있게 시행할 것인가. 최근 들어 정기오(2005), 조원권 외(2004), 권대봉(2005), 남권형(2005) 등이 교육분야 ODA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교육분야 ODA의 총체적인 현황분석을 통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분야 ODA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반적이며 심층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적은 규모의 ODA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분야의 ODA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KOICA의 7대 전략적 지원분야는 (1) 교육분야, (2) 보건의료분야, (3) 행정제도 개선분야, (4) 농촌개발분야, (5) 정보통신분야, (6) 산업에너지분야, (7) 환경 및 여성개발분야 등이다.

우선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ODA의 역사와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1 우리나라 국제협력사업의 역사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사업은 1963년 미국국제개발청(USAID)의 자금지원에 의하여 연수초청훈련을 실시한 것이 효시이며, 1965년에는 우리 정부의 자금으로 연수생초청사업을 실시하였다. 1967년부터는 전문가 파견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77년에는 외무부가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개도국에 우리 국산기자재를 공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80년대 들어서 국제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자 초청훈련사업 및 무상건설기술 용역제공사업, 노동부의 직업훈련원 설립 지원사업 등이 각각 시작되었다. 또한 1987년 300억원의 정부출연금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창설하여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차관제공을 시작하여 본격적인 기반을 갖추었다. 1989년에는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이 UNESCO한국위원회 주관하에 시행되어

1990년 처음으로 개도국에 우리 봉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조원권 외, 2004).

우리나라의 ODA 실적추이는 표 1과 같다. 그동안 ODA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앞서 밝힌 대로 2005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7억 4,360만 달러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2개 국가 평균 0.33%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림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현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자 OECD 회원이면서도 2005년 현재 ODA 공여는 GNI 대비 0.09%로 OECD 국가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가장 높은 국가인 룩셈부르크 0.87%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2 교육분야의 ODA 사업현황 및 성과

가. 교육분야 ODA 실적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주관하고 있는 분야별 ODA 사업 중에서 교육분야의 연도별 규모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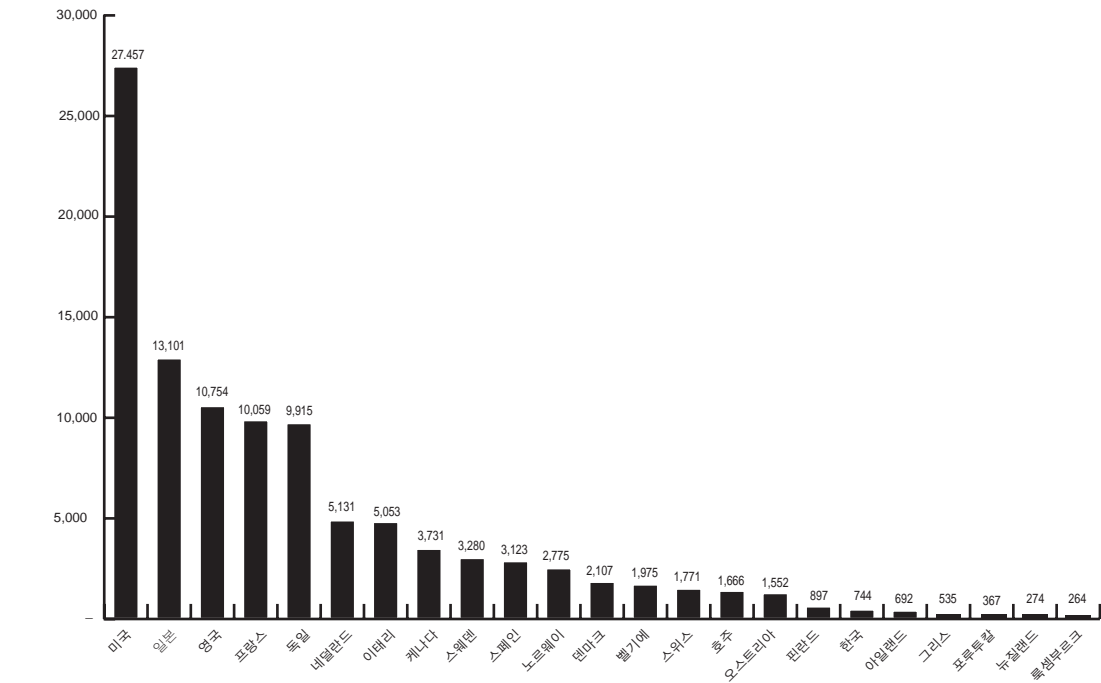
〈표 1〉 우리나라 ODA 실적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ODA계(A+B) | 182.7 | 317.5 | 212.1 | 264.7 | 278.8 | 365.9 | 423.3 | 743.6 |
| · 양자간(A) | 124.7 | 317.5 | 131.2 | 171.5 | 206.8 | 245.2 | 330.8 | 456.5 |
| - 무상원조 | 37.2 | 39.0 | 47.8 | 53.0 | 66.7 | 145.5 | 212.1 | 315.4 |
| - 유상원조(EDCF) | 87.5 | 92.4 | 83.4 | 118.6 | 140.1 | 99.7 | 118.7 | 141.1 |
| · 다자간(B) | 58.0 | 186.1 | 80.9 | 93.1 | 72.0 | 120.7 | 92.6 | 287.2 |
| ODA/GNI(%) | 0.06 | 0.08 | 0.05 | 0.06 | 0.06 | 0.06 | 0.06 | 0.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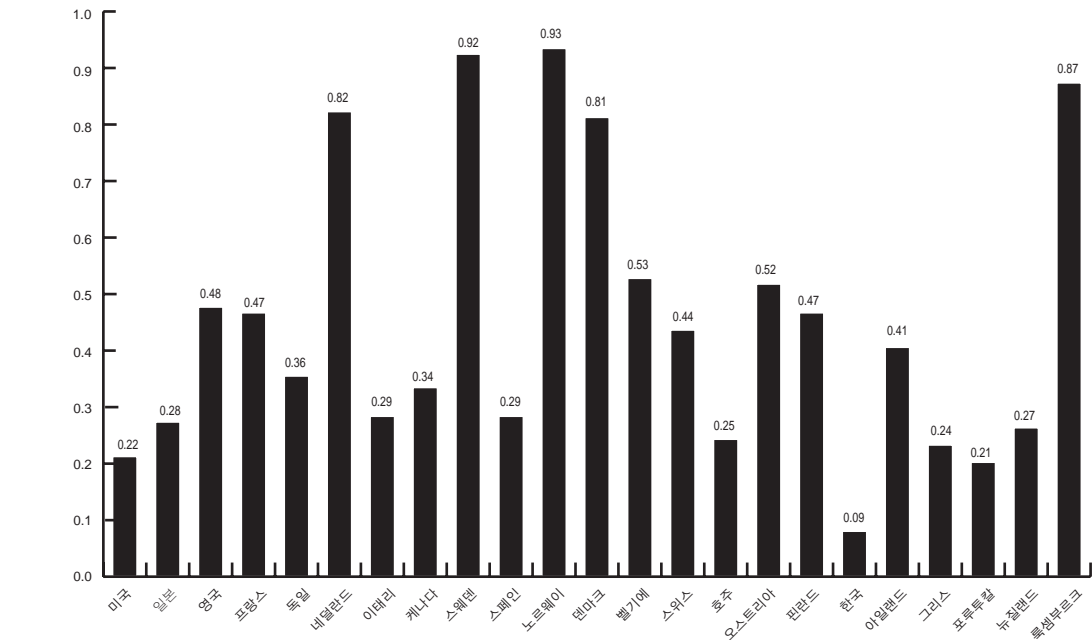
자료 : 재정경제부, 2006.

[그림 1] OECD DAC 회원국의 2005년 ODA 지원실적(잠정)



자료 : 재정경제부, 2005.

[그림 2] OECD DAC 회원국의 2005년 ODA/GNI 비율(잠정)



자료 : 재정경제부, 2005.
주 : 한국은 OECD DAC 비회원국.

이를 보면 표 2와 그림 3과 같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여 오다가 2003년부터 배 이상 늘어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 세부분야별 실적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ODA 총액에서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도에 불과 17%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2000년 25.2%까지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가 2003년 이후에 절대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해도 전체 ODA에서 교육의 비중은 그리 높아졌다고 볼수가 없다. 교육은 그 특성상 개도국에 있어 자금이나 물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이지 않지만 그 효과는 지속적이 훨씬 장기적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2005년도를 중심으로 교육분야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협력사업비 17%에 해당하는 총 364억원을 지원하였다. 사업지원 형태로는 교육 훈련 프로젝트 사업이 59.8%로 가장 높으며, 해외 봉사단 파견(25.5%), 연수생초청(7.7%), 물자지원(5.7%), 봉사요원 파견(0.6%) 순으로 지원하였다. 본 장에서는 교육분야의 연수생 초청사업, 전문인력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프로젝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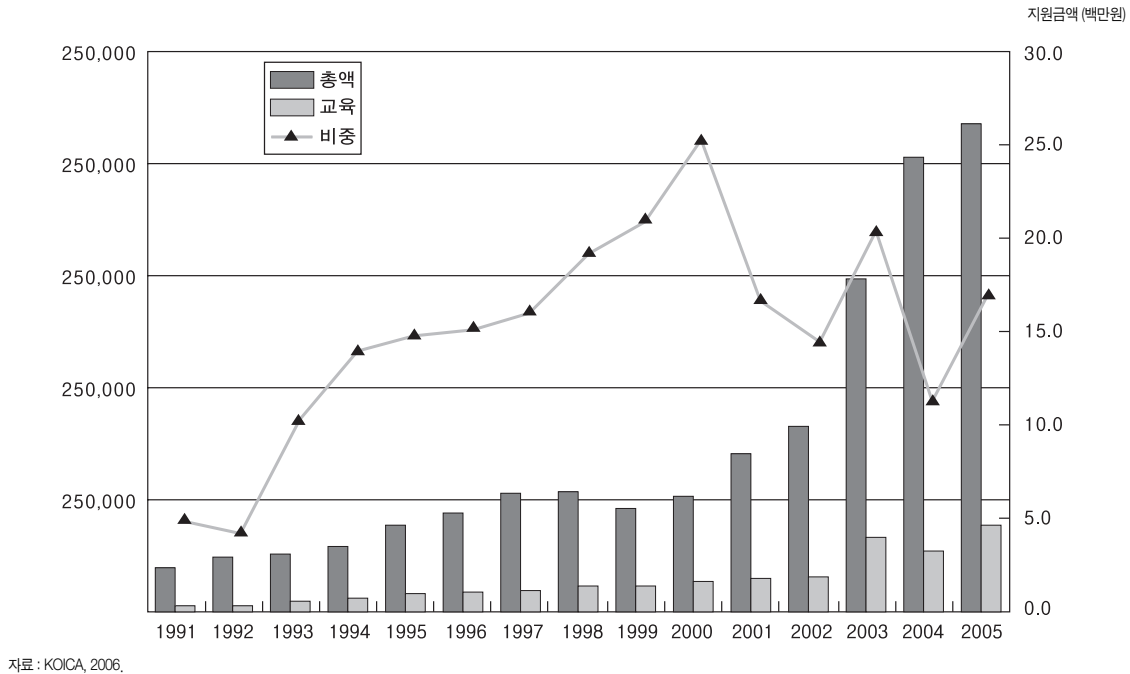
〈표 2〉 한국 교육분야 ODA 연도별 규모추이

(단위 : 백만원, %)

| 연 도 | 총 액 | 교 육 | 비 중 |
|------|---------|--------|--------|
| 1991 | 17,377 | 899 | (5.2) |
| 1992 | 23,168 | 940 | (4.1) |
| 1993 | 24,605 | 2,469 | (10.0) |
| 1994 | 30,774 | 4,492 | (14.6) |
| 1995 | 37,959 | 5,664 | (14.9) |
| 1996 | 43,250 | 6,497 | (15.0) |
| 1997 | 52,761 | 8,396 | (15.9) |
| 1998 | 53,776 | 10,320 | (19.2) |
| 1999 | 45,116 | 9,464 | (21.0) |
| 2000 | 51,276 | 12,905 | (25.2) |
| 2001 | 69,718 | 11,016 | (15.8) |
| 2002 | 77,664 | 10,714 | (13.8) |
| 2003 | 147,900 | 29,792 | (20.1) |
| 2004 | 203,408 | 23,236 | (11.4) |
| 2005 | 215,121 | 36,421 | (16.9) |

자료 : KOICA, 2006.

[그림 3] 교육훈련분야 지원실적



첫째, 연수생 초청사업은 개도국의 공무원이나 전문인력 등을 초청하여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룬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여 개도국의 전문인력을 양성시키고 양 국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연수생 초청사업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을 지원하는 사업형태로는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1963년 미국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자금지원에 의해 수탁 훈련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연수 분야별로는 우리

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개발, 공공행정, 농림수산 분야에 대해 연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연수의 전이 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 범지구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및 여성개발 등의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연수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KOICA, 2006).

본 연수생 초청사업에 있어 그 연수기관은 중앙부처, 대학교, 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2006년도 131건에 있어 9개 대학⁴⁾만이 16건에 참여하고 있다.⁵⁾ 이는 전체사업 중 불과

4) 강원대학교 (아·태리더십센터),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기능대학,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

5) 연수생 초청사업에 있어 강원대학교에서도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참가하였는데, 강원대학교 아시아·태평양리더십센터(소장 이현호)에서는 2006년 06월 30일 ~ 07월 15일까지 총 2주간 동남아시아 14개국의 공무원을 초청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태지역 차세대 지도자연수 - Young Leaders Training Progra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의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음

〈표 3〉 2005년 교육분야 세부사업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 총지원액 | 교 육 | 비 중 |
|--------|---------|--------|-------|
| 총 계 | 215,121 | 36,421 | 100.0 |
| 프로젝트 | 72,756 | 21,784 | 59.8 |
| 물자공여 | 48,792 | 2,08 | 25.7 |
| 긴급원조 | 12,724 | 0 | 0.0 |
| 개발조사 | 6,784 | 0 | 0.0 |
| 연수생 | 15,228 | 2,810 | 7.7 |
| 전문가 | 1,224 | 218 | 0.6 |
| 의료단 | 1,887 | 0 | 0.0 |
| 태권도 | 1,198 | 0 | 0.0 |
| 봉사단 | 30,519 | 9,298 | 25.5 |
| 봉사요원 | 1,875 | 229 | 0.6 |
| 협력의사 | 1,204 | 0 | 0.0 |
| NGO | 2,837 | 0 | 0.0 |
| 행정비 | 15,766 | 0 | 0.0 |
| 개발인식증진 | 2,327 | 0 | 0.0 |

자료 : KOICA, 2006.

〈표 4〉 연수생초청사업 연도별 실적

| 구 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총 계 |
|-------|-------|-------|-------|-------|-------|-------|--------|
| 국가수 | 113 | 115 | 124 | 112 | 124 | 117 | 163 |
| 인원(명) | 1,926 | 2,089 | 2,517 | 2,483 | 2,375 | 2,651 | 21,899 |
| 과정수 | 106 | 124 | 150 | 155 | 148 | 166 | 1,292 |

자료 : KOICA, 2006.

주 : 총계는 1991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임

〈표 5〉 2006년 연수분야별 초청계획

| 구분 | 계* | 교육훈련 | 의료보건 | 공공행정 | ICT | 산업인프라 | 무역금융 | 농림수산 | 기타 | *여성 | *환경 |
|---------|--------|-------|------|-------|-----|-------|-------|-------|-------|-----|-------|
| 인원(명) | 2,140 | 247 | 103 | 463 | 110 | 391 | 203 | 249 | 374 | 42 | 172 |
| 건(수) | 131 | 14 | 6 | 34 | 7 | 23 | 13 | 16 | 18 | 3 | 13 |
| 금액(백만원) | 12,960 | 1,496 | 624 | 2,804 | 666 | 2,368 | 1,229 | 1,508 | 2,265 | 254 | 1,042 |
| 점유율(%) | 100 | 11.5 | 4.8 | 21.6 | 5.1 | 18.3 | 9.5 | 11.6 | 17.6 | 2.0 | 8.0 |

자료 : KOICA, 2006.

주 : 미정은 예비인원(214명) 포함, *여성 및 환경은 별도계상.

12.2%만을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문인력 파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67년 에티오피아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를 최초로 파견한 이후 매년 재외공관을 통하여 전문가파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연간 40~50명의 전문인력을 개도국에 파견하고 있다. 그 기간은 1개월에서 1년 등 장·단기로 다양하며 기술지도, 연구, 강의, 자문, 조사 및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여 전문지식을 전수하고 있으며, 현재 개도국의 파견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학에서는 연수생초청사업이나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에는 어느 정도 참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문인력 파견사업에 대해서는 그 인식이나 참가가 매우 미흡하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거의 드물고 무엇보다 대학관계자들 스스로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 학생들을 파견하고 전문가를 파견할 경우, 학생 스스로에게도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문가 파견사업은 무엇보다 개도국의 요청분야와 우리나라의 파견분야가 일치하여야 하는데, 다양한 분야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인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매년 파견요청 분야가 세분화되고 요청 자체가 증가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대학은 다양한 인재를 더 많은 국가에 파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으로 한국은 1990년 정부의 위탁을 받아 UNESCO한국위원회가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등 4개국에 44명의 제 1기 해외봉사단원을 최초로 파견하였다. 그 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창설로 더욱 체계적으로 변화하여 표 7과 같이 2005년에는 총 30개국에 723명을 파견하여 지난 90년 이후 15년간 총 3,003명이 총 34개국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였다.

해외봉사단 파견에 있어 팀제봉사단은 주로 2~5명의 봉사단원이 특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하나의 팀을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기간도 3개월에서 2년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국제협력봉사요원과 국제협력의사로 해외에 파견하여 일정기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모두 마친 후에는 병역을 필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봉사단 파견에 있어서도 ODA 지원실적과 마찬가지로 2004년 및 2005년에 두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전쟁 및 분쟁에 있어 우리나라 청년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개발도상국가에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 평화봉사단

〈표 6〉 2000~2005년까지의 전문인력 파견현황

| 구 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국가 | 20국 2기구 | 23국 2기구 | 26국 1기구 | 28국 1기구 | 28국 2기구 | 21국 1기구 |
| 인원 | 44명 | 46명 | 42명 | 40명 | 47명 | 40명 |

자료 : KOICA, 2006.

〈표 7〉 연도별 해외봉사단 파견현황

(단위 : 명)

| 구 분 | 합 계 | 봉사단원 | 팀제단원 | 협력요원 | 협력의사 | 활동국가 |
|------|-------|-------|------|------|------|------|
| 합 계 | 3,003 | 1,845 | 542 | 527 | 89 | 36 |
| 1990 | 44 | 44 | | | | 4 |
| 1991 | 37 | 37 | | | | 7 |
| 1992 | 52 | 52 | | | | 8 |
| 1993 | 51 | 51 | | | | 9 |
| 1994 | 59 | 59 | | | | 11 |
| 1995 | 106 | 78 | | 20 | 8 | 19 |
| 1996 | 131 | 93 | | 30 | 8 | 26 |
| 1997 | 138 | 90 | | 39 | 9 | 23 |
| 1998 | 108 | 64 | | 39 | 5 | 18 |
| 1999 | 103 | 70 | | 28 | 5 | 21 |
| 2000 | 126 | 84 | | 34 | 8 | 21 |
| 2001 | 181 | 134 | | 37 | 10 | 24 |
| 2002 | 207 | 139 | | 60 | 8 | 25 |
| 2003 | 208 | 120 | | 80 | 8 | 27 |
| 2004 | 729 | 392 | 250 | 79 | 8 | 26 |
| 2005 | 723 | 338 | 292 | 81 | 12 | 28 |

자료 : KOICA, 2006.

(Peace Corps)이 있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 미시건 대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에서 평화와 봉사를 실천하고자 설립한 후 2005년 현재 138개국에서 182,000명이 봉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교육분야는 전체 사업에서 34%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살펴보면 이것은

개도국의 교육·훈련, 보건·의료, IT 분야 등의 지원을 위하여 건물이나 시설물을 지어주는 물적 협력수단(Hardware)과 전문가파견 및 연수생초청 등의 인적 협력수단(Software)을 결합한 다년간(2년~5년)의 사업이다. 사업분야는 교육·훈련, 보건·의료, IT, 농림·수산, 공공행정, 등으로 다양하며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인 교육·훈련, 보건·의료 및 IT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8〉 2006년 프로젝트형 사업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 | 교육훈련 | 의료보건 | 공공행정 | ICT | 산업인프라 | 무역금융 | 농림수산 | 기타 | *여성 | *환경 |
|---------|--------|-------|------|-------|-----|-------|-------|-------|-------|-----|-------|
| 인원(명) | 2,140 | 247 | 103 | 463 | 110 | 391 | 203 | 249 | 374 | 42 | 172 |
| 건(수) | 131 | 14 | 6 | 34 | 7 | 23 | 13 | 16 | 18 | 3 | 13 |
| 금액(백만원) | 12,960 | 1,496 | 624 | 2,804 | 666 | 2,368 | 1,229 | 1,508 | 2,265 | 254 | 1,042 |
| 점유율(%) | 100 | 11.5 | 4.8 | 21.6 | 5.1 | 18.3 | 9.5 | 11.6 | 17.6 | 2.0 | 8.0 |

자료 : KOICA, 2006.
주 : *여성 및 환경은 별도계상.

프로젝트 사업은 교육장비, 건물신축 등과 같은 기반시설의 확충과 교재 및 교과과정 개발 지원, 교사 훈련 등의 기술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훈련포함)분야의 ODA의 연도별 추세를 유·무상을 합쳐 전반적으로 보면 위의 표 8과 같다. 이 도표 상 두드러진 점은 최근 3년 사이에 교육분야 원조액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ODA 원조에 있어서 최근 몇 년간 교육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을 시사하는 바라 하겠다.

대학의 충분한 인적자원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본 프로젝트 사업의 전문가파견이나 연수생초청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나라의 기술인력 양성 경험 및 모델을 전수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양자간 유상협력분야

공적개발 자금 중, 법적 채무를 동반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상환의 의무가 있는 차관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설립되어 유상협력이 본격화 되었는데, 개발도상국 116개 사업에 약 20억불의 원조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이 본 기금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분야별 지원실적은 표 9와 같다.

표 9는 1987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을 부문별로 나타내고 있다. 교육훈련분야에는 전체 개발사업 138개 사업 2조3,739억원(2,406백만 달러)의 7.7% 정도에 해당하는 1,819억원(182백만 달러) 정도를 7개국 9개 사업에 개발차관으로 제공하였다. 즉, 상대적으로 전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이 교육훈련분야에 차관으로 공여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부문의 사업 내용은 직업훈련기관 건립 등 저개발국 교육인프라 구축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대외협력차관기금을 관리하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이러한 경험이 충분치 못하여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프로젝트원조 형태가 대부분인 물리적 인프라

〈표 9〉 개도국 차관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승인액계 | 개도국차관 | | | | | | | | | | | 해외 투융자 |
|----|-----------|---------|---------|---------|---------|--------|---------|---------|---------|--------|--------|-----------|-----------|
| | | 교 통 | 통 신 | 에너지 | 수자원위생 | 환경보호 | 보 건 | 교 육 | 공공행정 | 농수임 | 기타 | 소계 | |
| 합계 | 2,373,946 | 632,745 | 346,535 | 245,626 | 247,776 | 22,196 | 287,658 | 181,949 | 147,403 | 87,871 | 72,491 | 1,372,250 | 1,596 |
| 87 | 17,890 | 1,789 | - | - | - | - | - | - | - | - | - | 17,890 | - |
| 8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 23,775 | 10,370 | 3,790 | - | - | - | - | - | - | - | 8,997 | 23,157 | 618 |
| 91 | 58,021 | 10,930 | 5,406 | - | 7,235 | 9,080 | - | 18,181 | - | - | 7,189 | 58,021 | - |
| 92 | 71,594 | - | 43,899 | - | 11,600 | - | 4,123 | 10,994 | - | - | - | 70,616 | 978 |
| 93 | 50,540 | - | 39,468 | 11,072 | - | - | - | - | - | - | - | 50,540 | - |
| 94 | 80,739 | 26,483 | 8,249 | 31,49 | 7- | - | - | 8,110 | - | - | 6,400 | 80,739 | - |
| 95 | 106,036 | 1,673 | 24,505 | - | 26,807 | - | - | - | - | - | 23,051 | 106,036 | - |
| 96 | 302,662 | 106,016 | 77,087 | 66,696 | 9,739 | - | 18,020 | - | 8,171 | 16,933 | - | 302,662 | - |
| 97 | 94,690 | 17,955 | - | 17,903 | 4,444 | - | 27,534 | - | - | - | 26,854 | 94,690 | - |
| 98 | 107,802 | 44,178 | 16,114 | 14,044 | - | - | 22,668 | - | - | 10,798 | - | 107,802 | - |
| 99 | 179,397 | 17,066 | 35,099 | 934 | 45,336 | - | 34,728 | 39,251 | 6,983 | - | - | 179,397 | - |
| 00 | 242,321 | 64,018 | - | 74,496 | 43,274 | 6,638 | 53,895 | - | - | - | - | 242,321 | - |
| 01 | 140,712 | 27,015 | 35,259 | - | 23,400 | - | 26,198 | - | 26,350 | 2,490 | - | 104,712 | - |
| 02 | 147,318 | 80,388 | - | - | - | - | 30,700 | 36,230 | - | - | - | 147,318 | - |
| 03 | 179,730 | 46,008 | 32,075 | 28,984 | - | 6,478 | - | 27,630 | 13,079 | 25,476 | - | 179,730 | - |
| 04 | 248,724 | 58,767 | - | - | 79,121 | - | 20,467 | 41,553 | 48,816 | - | - | 248,724 | - |
| 05 | 321,895 | 73,988 | 25,584 | - | 96,820 | - | 49,325 | - | 44,004 | 32,174 | - | 321,895 | - |
| 비중 | - | 26.7 | 14.6 | 10.4 | 14.7 | 0.91 | 2.1 | 7.7 | 6.2 | 3.7 | 3.1 | 100.0 | -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06

〈표 10〉 한국 교육ODA 연도별 차관공여 현황

(단위 : 백만원)

| 년 도 | 국 가 | 사 업 명 | 승인액 | 집행액 | 자금구분 |
|------|--------|----------------|---------|---------|--------|
| | 계 | | 184,439 | 117,509 | |
| 1991 | 인도네시아 |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 18,181 | 16,994 | 개발사업차관 |
| 1992 | 케냐 | 기술훈련소 설립사업 | 10,994 | 10,994 | 개발사업차관 |
| 1994 | 인도네시아 | 실업교육 개선사업 | 8,110 | 7,098 | 개발사업차관 |
| 1999 | 우즈베키스탄 | 직업교육 개선사업 | 39,251 | 38,481 | 개발사업차관 |
| 2001 | 중국감숙성 | 농업기술연구소건립사업 | 2,490 | 2,489 | 기자재차관 |
| 2002 | 캄보디아 |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 36,230 | 35,226 | 개발사업차관 |
| 2003 | 우즈베키스탄 | 직업교육 개발사업 | 27,630 | - | 기자재차관 |
| 2004 | 라오스 | 루앙프라방 국립대학건립사업 | 23,133 | 6,227 | 개발사업차관 |
| | 탄자니아 |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 | 18,420 | - | 개발사업차관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06.

주 : 우즈베키스탄은 구매계약 추진중이며 탄자니아는 정부간협정추진 중임.

라 구축 사업에 우선순위가 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세계은행이나 일본대외협력 기금 등 해외교육차관자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교육발전을 성취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으로서의 이러한 성공적 교육차관사업 경험이 공여국으로서 해외의 교육차관사업을 하는데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과거 교육차관사업에 참여했던 국내의 전문가들과 그 전문지식을 효과적으로 ODA 사업에 참여시키고 동원하지 못하는데 있다(정기오, 2005).

라. 기타의 교육분야 ODA 성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에서도 교육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국제교류재단의 사업은 주로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대국의 주요인사 및 학생에 대한 국내 초청 체류경비를 지원하거나 국내인사의 상대국 방문 체류 경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도 국제교류재단의 교육사업 중 교육분야 ODA는 다음 표와 같다.

교육인적자원부 경우 외국유학생 초청사업이 있는데,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유학생의 현황은 그림 4와 같다

이들 외국 유학생 중 2005년 자비유학이 17,599명, 우리정부 초청이 388명, 대학초청이 2,873명, 외국정부파견이 309명으로 자비유학이

전체 유학이 대부분이며, 정부초청은 약 1.7%를 겨우 차지하고 있어 이 중 ODA에 상당하는 개도국 유학생 초청의 비중은 훨씬 작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2004년도에 비해 정부초청 장학생은 증감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육분야의 ODA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상당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 및 전국의 대학을 통해 실행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들 유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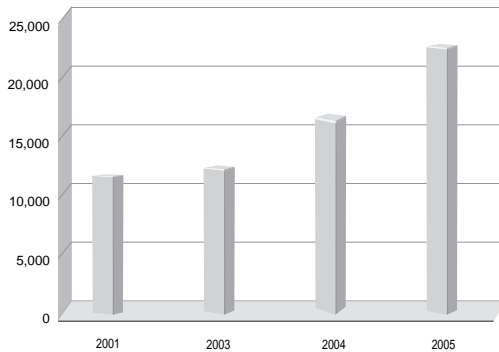
〈표 11〉 한국국제교류재단 교육분야 ODA의 국가별 지원액 (2005)

(단위: US\$)

| 국 가 | 지원금액 | 국 가 | 지원금액 |
|--------|---------|------------|--------|
| 중국 | 576,013 | 이란 | 34,875 |
| 러시아 | 212,932 | 미얀마 | 31,739 |
| 베트남 | 130,151 | 우크라이나 | 30,816 |
| 필리핀 | 110,027 | 캄보디아 | 30,816 |
| 인도네시아 | 89,529 | 키르기스스탄 | 30,816 |
| 인도 | 84,722 | 몽골 | 28,643 |
| 멕시코 | 80,663 | 네팔 | 28,434 |
| 우즈베키스탄 | 75,676 | 리투아니아 | 27,656 |
| 폴란드 | 68,394 | 말레이시아 | 26,404 |
| 태국 | 67,875 | 벨라루스 | 20,408 |
| 불가리아 | 61,239 | 모로코 | 19,812 |
| 헝가리 | 58,495 | 체코 | 18,424 |
| 이집트 | 55,283 | 말레이시아 | 18,263 |
| 아르헨티나 | 54,911 | 에콰도르 | 17,604 |
| 카자흐스탄 | 53,344 | 세르비아-몬테네그로 | 17,262 |
| 라오스 | 47,099 | 칠레 | 16,464 |
| 방글라데시 | 43,225 | 사우디아라비아 | 16,141 |
| 터키 | 41,709 | 파키스탄 | 15,623 |
| 이스라엘 | 40,656 | 슬로바키아 | 15,545 |
| 대만 | 34,882 | 나이지리아 | 15,408 |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2005.

[그림 4] 연도별 외국인유학생 현황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5.

〈표 12〉 유학형태별 유학생수

(단위: 명, %)

| 유학형태 | 2004 | 2005 | | 증 감 |
|------------|--------|--------|-------|-------|
| | | 명 | 비 중 | |
| 합 계 | 16,832 | 22,526 | 100.0 | 5,694 |
| 자비 유학생 | 12,842 | 17,599 | 78.1 | 4,757 |
| 정부초청 장학생 | 391 | 388 | 1.7 | -3 |
| 대학초청 장학생 | 2,527 | 2,873 | 12.8 | 346 |
| 자국정부파견 장학생 | 198 | 309 | 1.4 | 111 |
| 기 타 | 874 | 1,357 | 6.0 | 483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5.

의 출신국가⁶⁾를 살펴봐도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 비중도 높지만, 중국이나 베트남, 몽골도 상위 유학생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가의 학생들이 주로 한국의 경제발전 및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하여 유학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III. 국제교육협력의 문제점

ODA의 많은 부분이 비록 빈곤과 기아해결 등 인도주의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적의 달성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 점에서 ODA의 직접적 성과는 오히려 상대 개도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교육분야 ODA에서도 상대국의 교육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목적 외에도 많은 부수적 성과를 기대하며 정책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진다.

그 중 첫 번째는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상대국민을 우리나라의 우방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확산시키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교육분야의 ODA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대외적으로 그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회에 교육원조를 확대하여 차세대에 있어 한국을 지원하고 친한적인 인적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ODA는 공여 상대국에게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많은 한국의 차세대 주자들이 상대국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여기에 두 번째 성과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을 벗어나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려면 이러한 정보와 지식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6) 교육인적자원부(2005)에 따르면 2004년도 한국내 유학생 비중은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대만, 5위 베트남, 6위 몽골 등임.

이와 같이 교육분야의 ODA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따라서 여기서는 교육 OD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 절에서는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교육 ODA의 비중이 너무 적은 형편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지원하고 있는 ODA 총액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도 기준 불과 17%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ODA 전체사업에서 교육분야가 예산의 분배나 정책의 입안에서 다른 사업보다는 덜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2005년 세부사업(표3 참조)인 프로젝트, 물자공여, 개발조사, 연수생 등의 14개 사업 중 교육이 참여하는 것은 6개 분야 뿐이다. 심지어 표 9의 우리나라 EDCF의 교육분야 지원액을 보면 1987이후 2005년까지의 실적에서 교육은 단지 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지원대상의 범위에 들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전체 ODA 중 교육분야는 그 효과와 수혜범위가 상당히 대규모이며 장기적, 잠재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ODA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간과되어 왔다.

둘째, 교육 ODA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부재한 형편이다. 아래 표 13에서도 나타나지만 교육분야의 ODA는 각 기관별 지원내용 속에 산발적으로 속해있다. KOICA의 연수생 초청사업, 한국국제교류재단이나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생, 교사 등의 초청연수 사업, 각 정부부처의 피교육자 초청

연수 사업 등이 있으며 그러한 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곳도 대학, 연구소 등의 산발적인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ODA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셋째, 교육 ODA에 실질적인 교육기관인 대학 등의 참여가 부족하다. 현재까지 많은 대학에서는 ODA 분야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훌륭한 인재와 고급 기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서 이러한 ODA에 대한 인식을 적게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 할

〈표 13〉 2005년 각 부처별 ODA 사업내용

(단위: 억원)

| 구 분 | 금 액 | 주 요 내 용 |
|--------------|----------------------|--------------------------|
| 재정경제부 (EDCF) | 4,612.7 (2,000.0) | 차관 및 국제개발은행 출연, 경제개발 컨설팅 |
| 정보통신부 | 116.4 | IT연수, 전문가, 봉사단 파견 등 |
| 교육인적자원부 | 84.7 | 교사, 연구원 초청연수 |
| 해양수산부 | 8.7 | 전문가 초청연수 |
| 보건복지부 | 6.1 | 대한한방의료봉사단 |
| 과학기술부 | 2.8 | 동구 R&D 연수 |
| 여성가족부 | 1.7 | APEC 여성 IT교육 |
| 문화관광부 | 1.0 | UNDP 개도국 관광지원 |
| 농림부 | 0.5 | 아시아 농업정책 워크샵 |
| 공정거래위원회 | 6.0 | 국제경쟁정책 워크샵 |
| 국가보훈처 | 0.6 | 대한한방의료봉사단 |
| 국세청 | 0.1 | 몽골 세무 공무원연수 |
| 관세청 | 0.5 | 야태 무역 세미나 |
| 농촌진흥청 | 5.4 | RDA 동문회사업 |
| 산림청 | 7.4 | 중국 사막화 사업 |
| 특허청 | 0.2 | |
| 소 계 | 4,854.7 | |
| 외교통상부(KOICA) | 2,221.4 | |
| 합 계 | 7,076.1 | |

자료: KOICA, 2006.

수 있다. 이러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은 ODA에 있어 교육분야가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바탕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의 부족에 따라 현재는 대학들이 ODA 사업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참여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2005년 연수생 초청사업이 모두 131건인데 그 중 불과 9개 대학만이 16건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들의 문제는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좀 더 봉사정신을 배우고 국제화 감각을 키우고 전문분야를 습득하고, 그 국가의 지역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ODA 교육관련 사업에 있어 연수생 초청이나 해외봉사단 파견 등의 사업은 대학과 함께 시행하면서도 정작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각 대학 및 대학생을 방문하여 순회 사업설명회나 모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ODA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좀 더 적극적인 관련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분야 ODA와 관련한 전문가가 부족하다. 교육훈련분야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와 여건이 다른 개발도상국의 역사, 문화, 정치, 사회 및 경제 환경을 이해해야만, 수원국의 여건과 요구에 적합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전문가도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 ODA를 연구하는 그룹이나 단체도 거의 없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교육 ODA가 가져올 긍정적 결과나 장기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IV. 교육분야 ODA의 향후 추진방향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고, 그 이면에는 선진국으로부터의 ODA가 큰 역할을 했음에 틀림이 없다. 또한 국가의 발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은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투자라 할 수 있다. ODA는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개발에 앞선 국가로서의 경험을 나누고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교육부문 ODA의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개도국에 대한 교육지원은 ODA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여타 부문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규모로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를 확산시키고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협력과 지원을 통해 개도국에 대하여 폭 넓은 정보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부문 ODA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GNI 대비 GDA 규모를 2015년

까지 0.25%로 확대하고 교육분야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인 연차별 확대계획이 수립하여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분야 ODA의 통합적 관리와 조율이 필요하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 및 기업에서도 교육 ODA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 ODA의 전체규모와 함께 교육부문의 비중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각 기관이 수행하는 교육관련 ODA의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KOICA,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 UNESCO, 각 대학 및 연구기관, 관련 NGO 등 통합되고 조율된 업무처리가 매우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 “교육원조기관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향후, 동 협의회가 단순한 협의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교육관련 업무의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ODA의 정책 및 계획수립에 있어 교육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은 그 특성상 자금지원이나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단기적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수립단계에서 다양한 교육지원 관련 정책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예산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ODA 정책 및 계획수립에 있어서 교육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교육 ODA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교육 ODA 사업 중 연수 프로그램은 피교육생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연수생 초청사업과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현지파견 연수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비용면으로 보면 파견 연수사업이 대규모의 인원을 저비용으로 연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발전경험이나 지식을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여러 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초청사업이 더 효과적일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거의 모두 단기적 사업들이다. 일회성을 끝내버릴 수 있는 이러한 단기프로그램들은 연수후에도 지속적으로 피연수생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산발적으로 여러 기관에 위탁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을 선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연수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개도국의 젊은이들을 선발한 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위탁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유학생 초청사업도 보다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개도국 지역, 경제발전, 국제개발분야 등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많은 개도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ODA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해외 공관을 통하여 그러한 수요를 조사받고 연수 프로그램 및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긴 하지만 더욱 세분화 되어가는 수요에 맞추어 프로그램과 전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도국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개도국 지역 및 경제발전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최빈국에서 최선진 개도국까지의 다양한 발전경험을 지녔고 그러한 경험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자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이다. 특히 교육을 바탕으로 한 발전과 개발경험을 지녔다는 점 때문에, 공여국 입장에서 어떤 측면이 저개발국가에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보다 내실있는 국제사회의 봉사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 일부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정책 입안에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지 않는 한은 정당성을 부여받고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 관련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교육 ODA 관련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어 초·중·등 학교 및 대학교에 대한 홍보, 시민홍보, 그리고 정책결정문자들에 대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V.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많은 대학에서는 ODA 분야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한국교육의 해외협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은 좀더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해야 하고 따라서 아래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학의 적극적인 ODA 참가 필요성

첫째, ODA를 통하여 많은 개도국으로의 진출도 가능하며 개도국 유학생 유치도 가능해 진다. 현재 대학은 신입생 유치경쟁, 대학간 통합 및 구조조정 등 다양하고 강도 높은 경쟁력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대학의 국제화 전략은 자매대학, 외국 대학과의 교류, 외국으로 분교설립, 외국유학생 유치 등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중 ODA를 통하여 많은 개도국으로의 진출도 가능하며 개도국 유학생 유치도 가능해 진다.

둘째, ODA 사업 참가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다. 오늘날 글로벌 시대를 맞

이하에 대학은 대학생들의 국제적인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대학이 ODA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외국인 연수생 및 유학생을 유치하고, 대학생들의 해외봉사를 적극 유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재학생들의 국제화가 가능하다.

셋째, 대학은 자신들의 전문분야에 ODA를 접목하여 특성화 시킬 수 있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ODA 전문연수기관이 될 수 있으며 의료, IT, 산업기술, 축산, 농업 등 타 대학에 비교하여 경쟁력이 우수한 분야에 많은 ODA 프로그램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화 대학은 ODA 전문가 양성프로그램과 강의를 개설하거나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그에 따라 중장기적인 ODA 연수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청 연수생이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수료할 수 있는 특별코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화 대학은 재정의 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NGO 들과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대학은 위와 같이 ODA를 통하여 대학의 국제화와 특성화 등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2. 대학의 역할

첫째, 국제개발 및 ODA 관련 연구와 전문가 양성교육이 시급하다. OECD의 수준을 따라잡고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향후 ODA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수프로그램도 그 기관과 내용이 향후 더욱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어 질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개도국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ODA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특성을 이해하는 개발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개도국과 개발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국제대학원이나 국제통상대학원에서 국제교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나, 국제개발 및 원조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전문기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대학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강의를 개설하거나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도국의 국비유학생 초청 및 인적자원개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초청의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 중 겨우 1.7%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ODA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학생 초청은 훨씬 더 작다. 석박사과정의 대학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과 그에 적합한 한국의 개발경험 과정을 개설하여 초청유학생 전문대학 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생들의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흥

보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KOICA를 통하여 나가는 해외봉사단원 수가 기존 200여명에서 2003년 이후 700여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개도국 사람들에게 본인의 기술과 봉사를 실현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반면 그 국가에 대한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는 등 자신에게도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파견 대상분야도 상당히 다양하므로 많은 대학생들이 젊은 시절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도와주고, 그 참여에 따른 학점취득 등 각종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각 대학에는 봉사활동 동아리나 단체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이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그룹을 대상으로 해외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시킬 수 있다. 또한 봉사활동 이후에 이들이 ODA 관련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봉사활동 간의 교류 및 해외봉사단체들과의 연계도 도모해 볼 수 있다.

넷째, 대학은 개도국의 전문가파견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KOICA와 한국국제협력재단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인사를 파견하고 있는데, 그 비중에 있어서는 KOICA의 경우 매년 20여개국 약 40여명을 파견하고 있다. 이것은 개도국의 많은 사람을 한 번에 교육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단기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 개도국 정부들로부터 파견요청이 매

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요청이 높은 경제정책, ICT, 직업훈련 등에 많은 국내 대학이 활발히 참여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고급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대학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개도국에 이러한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대학은 해외의 시설지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개도국의 교육이나 훈련, 보건 및 의료 등 특정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물적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KOICA를 비롯하여 몇몇 지방자치단체도 개도국에 학교와 병원 등을 설립하고 있다. 이 분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참여하는 단체도 더욱 다양해 질 것이다. 따라서 대학도 특성화된 분야의 장점을 살려서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을 개도국 현지에서 직접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그 해당 대학이 해외에 분교나 센터를 설립하여 그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도 마련해 줄 수 있다.

여섯째, ODA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적극적인 업무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이 ODA를 추진할 때 그 전략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봉사프로그램을 수행하는 NGO, 민간기업 그리고 ODA 관련기관과의 양해각서(MOU)와 같은 업무협약을 맺어 좀 더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민·관·학의 협력으로 종합적으로 체

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단체와의 교류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업무협약은 장기적인 ODA 사업계획 수립도 가능하게 해 주며 현 ODA 프로그램의 발전도 가져다 줄 것이다.

VI.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일원으로 그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의무가 증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원조규모는 그 절대적인 규모와 GNI 대비 상대적인 규모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UN의 권고기준이나 DAC 국가들의 평균치까지 ODA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록 적은 규모의 ODA일지라도 다른 공여국에 비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교육부문에서의 ODA규모를 확대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국민들이 빈곤국에서 선진국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경제성장

을 이루고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도국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선진국 그룹에 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다른 개도국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개발 또는 빈곤퇴치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육분야 ODA에 대한 기구와 체제를 정비하여 교육부, KOICA, 대학, 교육청 등 교육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도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ODA를 특성화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21세기 한국대학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있어 대학의 특성화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대학은 자체적으로 ODA 전문연수센터를 개설하고 전문가를 영입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국제개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도 국내외 유학생 통계,” 2005. 12.
- _____, 한국교육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육원조 활성화 방안, 2006. 9.
-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실,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 2005.11.15.
-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외원조(ODA) 정책 개선방안,” 2004. 12.
- 미국평화봉사단 (Peace Corps) <http://www.peacecorps.gov/>
- 재정경제부, “2005년도 ODA 현황,” 2006.
- 한국국제교류재단, “2005년도 ODA(OA) 지원실적,” 2005.
- 한국국제협력단 www.koica.go.kr 및 통계 사이트 <http://stat.koica.go.kr/korean/mainframe.html>
- 한국수출입은행, “2005 EDCF Annual Report,” 2005.
- 권대봉, “한국의 대개도국 교육분야 ODA: 현황 및 향후전략,” 제2차 유네스코 교육포럼, 2005. 6.
- 남권형, “한국해외협력단(KOICA)의 교육분야 국제원조사업,” 제2차 유네스코 교육포럼, 2005. 6.
- 서정화, “국가간 국제교육교류 · 협력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3-공모-1, 2003.
- 장현식, “한국형 국제개발협력의 의미와 추진방향,” KOICA-아태리더십센터 공동 심포지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와 대학의 역할』, 2006. 9.
- 정기오, “한국교육분야 ODA 추진전략,” 제2차 유네스코 교육포럼, 2005.
- 조원권, 장지순, 김흥기, 오영삼, 남동식, “한국교육의 해외수출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4. 12.
- 전승훈, 이태주, 김달현, 이태희, 전은영, “우리나라 무상원조사업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 연구자료 정책연구 2006-2-19, 한국국제협력단, 2006. 3.
- 최정윤, “유네스코 고등교육 사업과 한국의 활용 전략: 진단과 제언,” 『유네스코와 교육』 제2부 6장, 오름, 2006.

[참 고 자 료]

〈표 1〉 국가별 교육관련사업 지원 요청현황 (2006)

(단위 : 백만원)

| 국가명 | 요청계기 | 사업내용 | 비고 |
|-------------------------|----------------------|---|---------------------------------|
| 콜롬비아 | 중남미 IT사절단 현지 방문시 |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 참여 요청 | EDCF 차관사업 |
| 과테말라 | 중남미 IT사절단 현지 방문시 | 교육정보화 사업 지원요청 | EDCF 차관사업 |
| 우즈베키스탄 | EDCF 협정 | 초중등학교 컴퓨터교실 설치, 교육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센터 설치 및 교육 | '06. 3월 차관 공여 체결 (재정경제부) |
| | | 실업계 고교 교육훈련용 기자재 공급, 교사훈련, 입찰자문 컨설턴트 고용 | '06.6-8월 컨설팅 업무 수행 중 (재정경제부) |
| 카자흐스탄 | 교육협력 약정 |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분야 협력 · 교환 등 | 교육인적자원부 |
| | 교육과학부 차관 방한 후속 조치 | 교육단지 조성사업에 기술적 지원요청 | 한국산업기술대, 전자부품연구원 (과학기술부) |
| 리비아 | 국무총리 순방시 지원약정 체결 | 직업훈련원 건립 | KOICA 무상 원조 (외교통상부) |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리비아 | IT분야 협력사업 | IT인력 초청연수 사업, 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국내 IT 정책 및 학위과정 유학지원, IT 단기 기술과정 연수, 사이버교육 사업 | 정보통신부 |
| 몽 고 | 대통령 몽골 방문시 건의 | 한국학 교육센터 설립 | 외교통상부 |
| 파키스탄 | 명지대와 MOU 체결 | 파키스탄 고등과학기술 교육기관(PAIST) 설립위한 자문 및 지원요청 | 파키스탄에서 국내 다수대학과 접촉 |
| 레소토 | 교육인적자원부 방문시 건의 | 직업교육 및 ICT 분야 지원요청교육 | 인적자원부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표 2〉 KOICA 교육·훈련분야 프로젝트/개발조사 사업 내역 (1991-2004)

(단위: 천불)

| 구 분 | 지 역 | 국가명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비 |
|------|-----|-------|----------------------|-------|--------|
| 프로젝트 | 아·태 | 인도네시아 | 한, 인니 직업훈련원 지원 | 91-94 | 5,200 |
| | | 스리랑카 | 개방대 한국어교육지원 | 92-93 | 120 |
| | | 스리랑카 | 아동복지원 지원 | 93 | 120 |
| | | 베트남 | 빈딩성 초등학교 건축지원 | 94-96 | 250 |
| | | 베트남 | 하노이, 퀴논직업훈련원 지원 | 94-98 | 2,500 |
| | | 스리랑카 | 한, 스 직업훈련원 지원 | 94-96 | 2,000 |
| | | 인도네시아 | 이동식 직업훈련원 지원 | 94-95 | 228 |
| | | 파키스탄 | 초등학교 건축지원 | 94-96 | 800 |
| | | 미얀마 | 라소대학 강당시설 개선 | 95-96 | 500 |
| | | 베트남 | 네안성 초등학교 건축 | 95-96 | 250 |
| | | 중국 | 도문 제3소학교 지원 | 95 | 450 |
| | | 중국 | 강소성 양주직업학교 지원 | 95 | 200 |
| | | 중국 | 금평현 민족직업학교 지원 | 95 | 340 |
| | | 태국 | 벽지학생 복지향상 지원 | 95-96 | 350 |
| | | 태국 | 찬드라카셈대 한국어센터 건립 | 95 | 100 |
| | | 태국 | 출라롱콘대 한국어센터 건립 | 95 | 100 |
| | | 스리랑카 | 개방대 실습실 지원 | 96-98 | 1,000 |
| | | 중국 | 흑룡강성 조선족사범학교 지원 | 96-97 | 500 |
| | | 중국 | 상해 한국어센터 지원 | 96-98 | 900 |
| | | 중국 | 위해 한국어센터 지원 | 96 | 190 |
| | | 태국 | 송클라대 한국어센터 건립 | 96 | 100 |
| | | 태국 | 치앙마이 한국어센터 건립 | 96 | 100 |
| | | 방글라데시 | 다카대 한국어센터 지원 | 97 | 100 |
| | | 베트남 | 산업기술학교 지원 | 97-01 | 5,000 |
| | | 중국 | 한, 중 직업훈련원 지원 | 97-00 | 10,000 |
| | | PNG | 카리타스여자기술학교 지원 | 97-98 | 250 |
| | | 몽골 | 국립원거리 교육센터 건립 | 98-00 | 340 |
| | | 몽골 | 한, 몽 기술대학 지원 | 00-01 | 700 |
| | | 베트남 | 중부지역 초등학교 건립 | 01-02 | 2,000 |
| | | 라오스 | 직업훈련원 건립 | 02-05 | 2,000 |
| | | 라오스 | 초등학교 건립 | 03 | 100 |
| | | 필리핀 | 한, 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 건립 | 03-05 | 5,000 |
| | | 스리랑카 | 자프나기능대학 개선사업 | 04-07 | 2,330 |

| 구 분 | 지 역 | 국가명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비 |
|------|------|--------|-----------------------|-------|-------|
| 프로젝트 | 미주 | 자메이카 | 기술훈련소지원 | 91-92 | 257 |
| | | 도미니카 | 1차 초등학교 건립 | 92-93 | 585 |
| | | 과테말라 | 제1 청소년복지원 지원 | 93-95 | 700 |
| | | 도미니카 | 2차 초등학교 건립 | 96-97 | 600 |
| | | 파라과이 | 기술전문학교 지원 | 96 | 200 |
| | | 과테말라 | 제2 청소년 직업훈련원 건립 | 97-99 | 500 |
| | | 과테말라 | 제3 청소년 직업훈련원 건립 | 97-99 | 500 |
| | | 니카라과 | 벽지농촌 교원주택 건립 | 97-99 | 1,000 |
| | | 온두라스 | 기술훈련원 건립 | 97-99 | 1,000 |
| | | 페루 | 식품기술훈련원 건립 | 98-00 | 1,000 |
| | | 볼리비아 | 기술교육훈련원 지원 | 00-02 | 750 |
| | | 코스타리카 | 기술훈련원 지원 | 00 | 230 |
| | | 니카라과 | 직업훈련센터 강화 | 02-03 | 383 |
| | | 과테말라 | 기술교육훈련원 건립 | 03-04 | 1,200 |
| | | 니카라과 | 국립농업기계화훈련원 현대화 | 04-05 | 338 |
| | | 코스타리카 | 우에따르노르페 직업훈련원 지원 | 04-05 | 330 |
| | 아프리카 | 케냐 | 기술훈련소 지원 | 91 | 600 |
| | | 튀니지 | Amira 직업훈련원 지원 | 94-95 | 400 |
| | | 케냐 | 나이로비공대 현대화 | 95-96 | 500 |
| | | 남아공 | 기능검정센터 지원 | 97-01 | 3,000 |
| | | 튀니지 | 국립직업훈련센터 지원 | 97-99 | 1,000 |
| | | 모로코 |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원 개선 | 04-05 | 500 |
| | | 알제리 | 직업훈련원 지원 | 04-05 | 1,000 |
| | | 이디오피아 | 참전용사촌 지원 | 04-05 | 800 |
| | 중동 | 수단 | 한,수 직업훈련원 지원 | 92-98 | 4,790 |
| | | 이집트 | Shorabia 직업훈련원 지원 | 93-95 | 600 |
| | | 이집트 | 자동차정비센터 지원 | 96-99 | 1,500 |
| | | 팔레스타인 | PA 초등학교 증축 | 97-98 | 200 |
| | | 아프가니스탄 | 한,아프간 직업훈련원 건립 | 03-05 | 9,000 |
| | | 아프가니스탄 | 공무원훈련원 건립 | 03-04 | 6,000 |
| | | 이라크 |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건립 | 03-06 | 9,000 |
| | | 아프가니스탄 | 한,아프간 직훈련 기숙사 건립 | 04-05 | 2,027 |
| | | 아프가니스탄 | 파르완주 학교 건립 | 04-05 | 800 |
| | | 이집트 | 알렉산드리아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원 지원 | 04-05 | 1,800 |
| | | 팔레스타인 | 교육시스템 개선 | 04-05 | 2,300 |

| 구 분 | 지 역 | 국가명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비 |
|------|----------|-------|-----------------------|-------|-----|
| 프로젝트 | 구주 및 CIS | 러시아 | 사할린 한인학교 지원 | 95 | 200 |
| | | 슬로바키아 | 슬로바키아대 한국어 강좌개설 지원 | 95-97 | 150 |
| | | 우크라이나 | Klovsky Lyceum학교 증축지원 | 97-98 | 500 |
| | | 불가리아 | 소피아대 한국어과 지원 | 01 | 300 |
| | | 루마니아 | Cluj-Napoca기술대 지원 | 03 | 220 |
| 개발조사 | 아프리카 | 튀니지 | 직업훈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 | 96-97 | 168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주 : 원자료는 KOICA

〈표 3〉 유네스코 고등교육 사업을 위한 2006-2007 예산

| 주요사업명 / 담당과 | 위한 정책 조연구 정보교환 | 예 산 | |
|-----------------------------|---|-------|--------------|
| 고등교육을 위한 정책옵션 향상/ RIQ 주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장 · 인증 영역에서 회원국들 역량 강화• 개발도상국, 분쟁후지역 국가들을 위한 정책 조연구 정보교환• 유네스코 고등교육 포럼을 통한 정책정보 및 의견교환 활성화 | 정규예산 | \$900,000 |
| | | 비정규예산 | \$3,228,000 |
| | | 합 계 | \$4,128,000 |
| | | | |
| 발전을 위한 대학간 협력 도모/ ICE 주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발전동력으로서 지역내 대학간 협력을 도모-파트너십 발전• 연수와 연구분야에서 세계 각지역 사이의 협력 강화• 대학과 다른 시민사회 파트너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또한 정책결정자, 연구자, 교사, 그리고 기타 전문가들 사이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유네스코 고등교육 포럼과 UNITWIN Networks를 활동 메커니즘으로 활용 | 정규예산 | \$600,000 |
| | | 비정규예산 | \$290,000 |
| | | 합 계 | \$890,000 |
| | | | |
| 교육에서 ICT 활용 증진/ RIQ 주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를 통해 교수학습과정의 질과 영향력을 향상시킴• 혁신적ICT에 기초한 방법으로 양질의 교육체계 · 자원 ·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IEFA(Education for All)와 교사연수 발전을 위한 미디어와 ICT 해법 개발 | 정규예산 | \$338,800 |
| | | 비정규예산 | - |
| | | 합계 | \$338,800 |
| | | | |
| | | 총 계 | \$ 5,356,800 |

자료 : 최정윤 (2006) 재인용
주 : 유네스코 문건33C/5에서 발췌한 상기내용은 2005년 10월 기준의 예산안이며, 최종예산은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표 4〉 UNITWIN Networks⁷⁾ / UNESCO Chairs 프로그램 참가한 국내교육기관

| 년도 | 주관기관 | 활동분야 | 협력기관 |
|------|---------------------|--|---|
| 1995 | 일민 국제관계연구소 (고려대) | Peace, Democracy, & Human Rights | UNESCO Chairs on Human Right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Beijing University University of Indonesia Tsukuba University University of Malaysia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Thammasat University |
| 1997 | 서울대학교 | Philosophy |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Hanazono University University of New Delhi University of Punjab (Pakistan), Ateneo de Manila (Philippines),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
| 1998 | 숙명여자대학교 |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Women | |
| 2003 | 계명대학교 |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 | |

자료 : 최정윤 (2006) 재인용.

7) 1992년에 시작된 UNESCO Chair/ UNITWIN (University Twinning and Networking Scheme) Networks 프로그램은 1998년 세계고등교육회의(WCHE)을 계기로 그 중요성과 활동이 강화되어 현재 121개국, 600여개 고등교육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동 유네스코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전세계 유네스코 회원국간에 정보와 지식을 교환함으로써 국가 역량을 높이고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주요 참가자는 많은 고등교육관련 비정부단체, 연구기관, 재단, 그리고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대학들이다.